

“장흥바이오산단 악취 못참아” 주민 40여일째 시위

입주 오리업체 가공 과정에서 털 날리고 냄새 진동 월평 등 주변 8개 마을주민 구토 증상 등 고통 호소 군, 뾰족한 대책 없어 고심... 투자유치에도 악영향

분양에 들어간 지 3년간 고작 3개 업체만이 입주할 정도로 분양률이 저조한 장흥 바이오산업단지(이하 바이오산단)가 그나마 입주한 업체의 악취로 인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

각각하며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15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흥읍 월평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은 특히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숨이 막힐 정도의 악취로 인해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군 당국과 오리 공장업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업체 측이 생오리 운송과 가공 작업 시 공장 문을 제대로 닫아 오리털이 인근 주변 곳곳에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당국이 나서 업체에게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요청하고 운반시 털 날림 방지덮개 장착, 세정식 집기시설 개선, 악취배출 반출 시간대 사전예고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오리가공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군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무인 악취 포집기’를 임대해 이 오리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빈도를 측정할 결과 기준치 이하로 분석되면서 군의 악취방지법에 의한 행정제재 및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D오리가공업체는 총 9만6000㎡(2만9천평) 부지에 1일 6만 마리 생산 라인을 갖추고 오리 도압, 신선육 훈제, 오리 털 가공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1·2단계 나눠 분양에 들어간 총 117만㎡(35만평) 규모의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9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D오리가공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만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14만송이 국화가 피었습니다

29일부터 월출산 배경 영암 ‘왕인 국화축제’

영암 ‘왕인 국화축제’가 오는 29일부터 20일간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을 배경으로 열린다. 7회째인 이번 축제에서는 총 18종, 14만점의 국화가 전시된다. 국화로 치장한 왕인문과 영월관을 비롯한 7m가 넘는 국화 탑, 현대삼호나 현재 D오리가공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만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kwangju.co.kr

든 종류의 국화를 감상할 수 있다. 대국을 활용한 입국, 복조국, 다룬국을 비롯한 소국을 활용한 현수국, 화단국, 분재국이 주전시관을 가득 채운다. 국화 옷을 입은 만화캐릭터, 동물 모형작도 선을 보인다. 구립한옥 마을 자전거 투어, 국화콘서트, 농촌사랑 시화전, 월출 미술인화의 ‘월출산과 국화’ 그림전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kwangju.co.kr



밭일 등 농작업시 무릎 관절 보호 효과 탁월 에덴뷰 ‘쫄그리’ 농어민에 인기

(주)에덴뷰가 쫄그리고 일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위해 개발한 ‘쫄그리’ (사진)가 무릎 관절 보호에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주)에덴뷰에 따르면 최근 품질인증 테스트에서 임상실험을 한 결과 ‘쫄그리’ 신제품이 장시간 농어업 종사자 및 산업체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완화에 우수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품질인증 테스트를 실시한 조선대 운동영양학 서영환 교수는 “쫄그리고 앉을 경우 무릎을 130도 이상 구부리게 되는데 이때 무릎 관절에 체중의 7배에 달하는 하중이 실린다”며 “그러나 쫄그리를 착용할 경우 무릎 관절 하중을 힘이 분산되면서 훨씬 수월하게 쫄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쫄그리를 사용해봤다는 최모(여·64)씨는 “주변에서 권

유해 쫄그리를 착용해보니 무릎에 힘이 가해지는 것이 덜했다”며 “무릎을 덜 굽히게 돼 밭일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또 앉아서 일하고 싶으면 바로 엉덩이를 받쳐주는 방식이 삼각쿠션과 일체형으로 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쫄그리’를 특허개발한 (주)에덴뷰 이진국 대표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초기 제품이 동이 나는 등 제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4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는 여성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1시간 정도만 쫄그려 앉아 있어도 남녀 모두 1.4배, 2시간 쫄그려 앉으면 남자는 2배, 여자는 2.4배 정도 무릎 관절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kwangju.co.kr



신안 전통식 햇김 곧 출시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갯벌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명품 신안 햇김이 조만간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에 생산된 햇김은 양해를 송공리·임자면 이 흑암리 김양식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숙당 1만원에 직거래로 판매된다. 사진은 임자면 김양식장. <신안군 제공>

해남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해남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군 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행 지자체로 선정, 국비 17억 원의 지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모두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남읍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군 지역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 및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을 완료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



신안 천사섬에 국내 첫 분재 기념관 개관

고 최병철 박사 소장품 명품분재 500점 등 전시 신안군 압해읍 천사섬 분재공원에 21일 우리나라 최초 분재 기념관인 ‘최병철 분재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사진> 군은 22일 “분재를 테마로 조성한 세계 첫 분재공원에 고 최병철 박사가 평생 관리한 명품 분재 및 분재 관련 소장품 전부를 기증 받아 기념관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유족들, 후원회원, 분재연구회 및 분재협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 최병철 박사(1945~2012)는 정음 출신으로 건국대 대학원에서 분재학 교수로 재직하던 분재학계의 석학으로, 지난 2011년 10월 평생 가꾸어온 명품 분재 500여점, 조경수 300여점, 분재소재 8000여점을 신안군에 기증한 바 있다. 최병철 분재기념관은 231㎡ 규모의 지상 1층 한식목조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6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됐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kwangju.co.kr

장성군 전국 최초 청림문화 전담 센터 개설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청림문화를 전담하는 센터를 개설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림문화센터 내 강의실에서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실과소장, 읍면장, 문화해설사,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림문화센터 개소 및 현관실을 가졌다. 청림문화센터는 청림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청림교육을 통한 청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시 앞면에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마련됐다. 센터 내에는 청백리전시실을 포함한 강의실과 교육생 숙소 등이 갖춰져 있다. 청백리전시실에는 군에서 배출한 아곡 박수량 선생과 지지당 송흥선생을 비롯해 조선 청백리와 현대 청백리, 청림한 세계인물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군은 청림문화센터를 통해 청림교육 참여 대상을 아시아권까지 넓히고 부패·반부패 국가 사례를 연구하는 등 청림 장성의 브랜드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